

설날 시댁서 생긴 일

한 남자와 결혼해 살면서 우리 여자들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시댁 식구들을 이해하며 포용할 수 있는 것일까?

난 시댁에 모이게 될 때면 언제나 숨을 크게 쉬고 “그래 우리 친정에 가는 거다. 시부모님은 친정 부모님이시고 시동생들은, 또 동서는 나의 사랑하는 동생들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몇번이고 다짐하고 출발하곤 한다.

그런데 이번 설날에도 사고가 터졌다.



추석이고 어머니님 생신이고를 불문하고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저녁식사도 하기 전에 꿈무늬를 빼곤 하는 시동생과 동서가 이번에도 점심식사가 끝나자 친정에 간다며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분위기를 깨버린 것이다.

내가 비정상인지는 모르지만 결혼 7년째이면서도 나는 항상 명절 다음날 친정에 갔는데 지금 부부들은 풍속도가 달라진 것일까? 추석날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머니님 생신 때는 친정 김장한다며 시동생과 그렇게 떠났고, 식구들 생일 때는 모임이 있다며 떠났다.

물론 동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시댁에 오면 종일 설거지·청소에 쫓겨 수가 없으니 불편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리라. 이해는 하면서도 어찌나 속이 상한지 이번 설날엔 “어머니, 저도 지금 친정에 가겠어요, 보내면 같이 보내고 아니면 같이 아닌 거지 어떻게 항상 이래야 해요” 하곤 뒤도 안 돌아보고 친정으로 달음질쳐버렸다. ‘조금만 참을 걸... 내 친정 동생이 그랬어도 화가 났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참 동안 착잡했지만 명절 때 시댁과 친정을 어떤 순서로 언제 가느냐 하는 문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다.